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최영희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Empathy in Mother-Child Play with Parenting Stress and with Other Variables

Choi, Young Hee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Hwaseong,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larify which variables affected a mother's empathic behavior shown in a mother-child play session. Mother's empathy was videotaped and recorded during mother-child twenty minute play sessions. The variables considered in the research were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age and education level, and the child's sex and birth order. Twenty four mothers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 age of their children was restricted to 5 yea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were verbally more accepting to their second or third child, and allowed their second or third child to lead more than their first child. And older mothers were more likely to accept their children's lead. Second,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for acceptance of their children and stress of depression were higher in college graduate mothers than high school graduate mothers. Third, the mother's empathy and level of parenting stres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s.

Key words: mother's empathy, mother-child play, parenting stress, birth order

I. 서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이므로 양육태도와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오래 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차

원론적으로 접근하거나 유형론적으로 접근하여 아동의 발달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찍이 Schaefer(1959)는 애정-적대(love-hostility)와 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두 차원을 제시하였고, Bronfenbrenner(1961)는 애정(loving), 별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1-C00428)

접수일: 2005년 7월 30일 채택일: 2005년 8월 15일

Corresponding Author: Choi, Young Hee Tel: 82-31-220-2229

E-mail: heechoi@suwon.ac.kr

(punishment), 그리고 요구(demanding)의 세 요인을 제시하였다. Slater와 Power(1987)는 온정과 지원(warmth & support), 훈육과 통제(discipline & control), 그리고 구조(structure)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양육행동을 유형으로 분류한 대표적인 학자는 Baumrind(1966)로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그리고 허용적(permissive)인 양육행동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Maccoby와 Martin(1983)은 Baumrind의 틀을 바탕으로 권위적, 권위주의적, 익애적, 그리고 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도 우리 문화에 맞는 양육행동 척도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박성연과 이숙(1990)은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일관성있는 규제의 7개 요인이 양육행동의 이론적 구인임을 증명하였고, 유우영(1998)은 이들을 다시 조직하여 애정, 거부/통제, 과보호, 일관성, 독립성지향의 5 요인으로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박주희(2000)는 양육행동을 온정·격려, 한계설정, 거부·방임, 그리고 과보호·허용의 네 요인으로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이론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제시하고 있는 양육행동 요인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양육행동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애정'이다. 애정적 행동은 아동에 대한 수용, 애정표현, 필요한 도움 제공,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과 같은 긍정적 행동이며(박주희 2000), 자녀에게 따뜻하고 친밀하게 대하고 자녀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유우영 1998)이다. 또한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아동중심적으로 아동의 요구에 민감성을 나타내는 태도(박성연·이숙 1990)이다. 애정 요인은 양육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Bates et al. 1985; Chen et al. 1997; 김경연 1987; 김희

경 1990; 송영민 1997; 이숙·최정미 2003).

어머니의 이러한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Endsley 등(1979)은 어머니는 여아에게 보다 애정적으로 대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에서는 여아에게보다 남아에게 좀 더 거부적이고 통제적이었다(박영애 등 2002; 이형덕 2000; 최지현 2001; Armentrout & Burger 1972)거나 여아에게 더 통제적이었으나(지진미 2003) 어머니의 애정적 행동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아동의 중요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다. 출생순위 차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Adler(1921)에 의하면 출생순위는 아동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상관이 있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험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첫째 아이가 아동상당실을 찾는 경향이 많다는 비공식적 보고(소아정신과 의사와의 면담)와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출생순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강운숙(1987)은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떤 차이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이형덕(2000)은 통제적 행동에서 차이를 발견하여 첫째 아동에게 보다 통제적인 행동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애정적 행동에서는 출생순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연구들을 요약하면 어머니는 자녀의 성이나 출생순위에 따라 통제적 행동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애정적 태도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연령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박미옥 1993; 이원영 1983) 또한 이원영(1983)은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양육행동을 질문지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는 것과 어머니가 실제 보이는 양육행동이 상관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보고하는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성격이 지배적인 경우에 자신의 양육행동을 통제가 적고 애정을 많이 보이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들의 자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하였다(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2).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가 아니라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필요가 대두된다. 그러나 연구방법 상 관찰법은 비경제적이므로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 관찰법을 적용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취하는 행동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애정적 행동에 초점을 두었는데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나 어머니가 실제로 보이는 행동은 자녀가 애정적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양육행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애정적 양육행동을 관찰을 통해 조사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애정적 행동의 실재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와 아동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자 하였다. 자녀의 자발적인 놀이행동을 격려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자녀에게 관심을 집중하면서 존중을 표현하는 행동, 즉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이러한 행동이 아동 변인과 어머니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주요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심리적 건강을 더 잘 예측해주며(Krech & Johnston 1992)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요 생활사건보다 부모의 기능을 더 잘 예언한다

(Crnic & Greenberg 199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효능감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신숙재 1997)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다(박성연 1996). 이와 같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상관이 있으므로 놀이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은 어머니 관련변인(연령, 교육수준)과 아동 관련변인(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관련변인(연령, 교육수준)과 아동 관련변인(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놀이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행동을 관찰해야 하므로 연구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어 연구대상을 표집할 때 어머니가 연구대상자로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기도 H시의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본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연구에 참여할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공문을 각 유치원에 보내도록 부탁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만 5세로 제한하여 아동의 연령 변인을 통제하였다. 30 명의 어머니가 지원하였으나 아동의 연령이 적절하지 않거나 놀이관찰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6명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24명의 어머니와 그 자녀가 참여하였다. 24 명의 어머니들 중 한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3명의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남아가 14명, 여아가 10명이었고, 첫째인 유아가 13명, 둘째 이하인 유아가 11명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11명, 대졸이 9명이었으며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4명이었다. 어머니 연령은

30세-35세가 13명, 36세 이상이 11명이었다.

2. 연구절차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하는 상황을 캠코더로 녹화하며 녹화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은 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교의 놀이실에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방문하여 20분 동안 자유롭게 놀이할 시간을 약속하였다. 2005년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24명의 유아와 그 어머니들의 놀이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대상자가 아닌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관찰을 한 결과 캠코더 만으로는 어머니의 언어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캠코더와 함께 MP3를 사용하여 정확한 언어를 녹음하였다.

3. 측정도구

1)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

Stover, Guernsey 그리고 O'Connell(1971)이 개발한 성인-아동의 공감적 상호작용 측정(Measurement of Empathy in Adult-Child Interaction; MEACI)을 사용하였다. MEACI는 놀이시간 동안에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보여지는 공감적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관찰하여 평정하는 것

이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보여지는 주요한 공감 측면으로 부모의 세 가지 행동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수용적 의사소통, 아동의 자기 안내 허용, 그리고 아동에게 몰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수용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행동이나 감정을 수용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며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아동의 자기 안내 허용은 아동을 통제하지 않고 아동의 주도에 기꺼이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에게 몰입하는 것은 아동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다. 채점기준은 Table 1과 같다.

매 3 분마다 어머니의 행동을 Table 1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하며, 20분 동안 관찰하였으므로 각 하위영역마다 6번씩 평가를 하게 된다. 이 때 수용적 의사소통은 다시 두 가지, 즉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와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로 나누어 채점한다. 즉 3분 동안 어머니가 보였던 가장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과 가장 낮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기록한다. 따라서 MEACI는 높은 수준의 수용적 의사소통, 낮은 수준의 수용적 의사소통,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그리고 개입의 네 영역으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수용적이고, 아동에게 지시적이며, 아동에게 몰입을 덜 하는 것으로 채점이 되나 이렇게 채점할 경우 하위 변인의 명칭과 점수의 정도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으로 채점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적이고 아동의 자기 안내를 허용하며 아동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몰입하는 것을 의

Table 1. Rating of MEACI(Measurement of Empathy in Adult-Child Interaction)

Score	Sub Categories		
	Communication of Acceptance	Allowing Child's Self-direction	Parental Involvement
1	Verbally conveys acceptance of feeling.	Follows the child's lead.	Fully observant.
2	Verbally recognizes & accepts behavior only.	Allows child's option for lead-taking.	High level of attention.
3	Social or no conversation.	Adult takes lead.	Marginal attention.
4	Slight to moderate verbal criticism.	Directs or instructs.	Partially withdraw/preoccupied.
5	Strongly critical/preaching/ rejecting.	Persuades, demands, interrupts, insists.	Self-involvement/shut off.

미한다. 각 영역마다 최저 6점에서 최고 36점의 범위를 갖는다.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 2명이 함께 녹화된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을 수차례 분석하며 분석 기준을 논의하여 통일하였다. 본 연구자와 각각의 보조 연구원의 평가의 일치도가 .95가 될 때까지 분석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국내에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이 경숙·엄현경·신운오(2000)가 2차 예비조사를 시도한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척도는 아동영역과 부모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동영역은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부모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갖게 하는지는 측정하는 ‘부모강화’ 요인(6 문항. 예; 우리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아동을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수용성’ 요인(7 문항. 예;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 못한다), 아동이 활동적이고 산만한지를 재는 ‘산만성’ 요인(4 문항. 예; 우리 아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산하다), 그리고 부모에게 직접적 압력을 가하는 ‘요구성’ 요인(7 문항. 예; 우리 아이는 항상 내게 매달리려 한다)으로 되어 있다. 부모영역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개인적인 자유와 역할이 제한받는다고 느끼는 정도인 ‘역할 제한’ 요인(4 문항. 예; 나는 가끔 아이의 요구들로 내 삶이 조정당한다고 느낀다), 부모의 정신병리 요소와 관련된 ‘우울증’ 요인(7 문항.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사회적 지지의 가용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고립’ 요인(6 문항. 예;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신체적 건강을 재는 ‘건강’ 요인(3 문항. 예;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이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배우자 관계’ 요인(4 문항. 예; 아이가 생긴 이후 남편은 나와 함께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이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아동영역에 24 문항, 부모영역에 24 문항으로 총 48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

을 의미한다.

하위영역 별 신뢰도(α)는 부모강화가 0.84, 수용성은 0.83, 주의산만성은 0.71, 요구성은 0.91, 역할 제한은 0.90, 우울증은 0.89, 사회적 고립은 0.68, 부모 건강은 0.75,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 0.6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 검정과 Pearson의 적률상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수가 적으므로 90%의 신뢰수준을 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수가 적어 집단간 등분산 가정이 의문시되므로 집단간 등분산 가정을 검증하여 t 값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이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t검증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높은 수준의 수용적 의사소통에서 둘째 이하 유아에게 어머니는 보다 수용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수용적 의사소통은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믿고 따라가면서 유아의 행동을 수용함을 표현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높은 수준의 수용적 의사소통은 놀이상황 동안에 어머니가 보였던 언어 표현 중에서 가장 수용적인 표현의 정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아에게보다 둘째 이하의 유아에게 어머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수용적인 표현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자기안내를 허용하는 정도 역시 둘째 이하의 자녀에게 더 높았다. 어머니가 자녀를 통제하지 않고 자녀의 주도에 기꺼이 따라 행동하는 정도가 첫째 아에게 보다 둘째 이하의 아동에게 더 높았다. 이는 첫째아 보다 둘째 이하

Table 2. MEACI according to mothers' and children's related variables

Variables	MEACI	Communication of acceptance (high level)		Communication of acceptance (low level)		Allowing child's self-direction		Parental involvemen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other related var.	Age	30-35	19.23 (2.01)	1.27	14.62 (1.50)	.90	14.54 (3.60)	2.08*	21.23 (2.49)	1.08
		36-	20.27 (2.00)		15.27 (2.05)		17.27 (2.67)		22.27 (2.20)	
	Education level	College grad.	20.00 (2.45)	-.36	15.33 (1.12)	-1.08a	16.33 (3.74)	-.30	21.67 (2.35)	.34
		High school grad.	19.64 (2.06)		13.79 (.67)		15.91 (2.55)		22.00 (2.10)	
Child related var.	Sex	Boys	19.64 (1.98)	.18	14.57 (1.60)	1.14	15.29 (3.73)	.85	21.50 (2.62)	.50
		Girls	19.80 (2.20)		15.40 (1.96)		16.50 (3.03)		22.00 (2.05)	
	Birth order	First	18.92 (1.04)	2.23* a	14.46 (1.76)	1.40	14.46 (3.48)	2.23*	21.23 (2.55)	1.08
		Below second	20.64 (2.54)		15.45 (1.69)		17.36 (2.77)		22.27 (2.10)	

a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p<.05

의 자녀에게 어머니가 보다 높은 정도의 수용적 의사소통을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하겠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도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36세 이상의 어머니가 35세 이하의 어머니들보다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정도가 높았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t검증하여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변인과 아동 변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자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정도인

수용성 요인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대졸인 어머니들이 고졸인 어머니들보다 자녀를 다루기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증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alpha=0.07$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졸인 어머니들이 고졸인 어머니들보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끼고 자녀의 잘못을 어머니 탓으로 돌려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수용성과 우울증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차이가 보이거나 어머니의 연령이나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다음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갖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Table

Table 3.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mothers' and children's related variables

Variables	Child domain	Reinforces parent		Acceptability		Distractability		Demandingness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other related var.	Age	30-35	1.71 (.72)	1.23a	2.78 (.86)	1.49	2.48 (.92)	.67	2.87 (1.05)	1.12
		36-	1.38 (.51)		2.26 (.85)		2.23 (.88)		2.38 (.93)	
	Ed. level	College grad.	1.68 (.67)	1.37	3.08 (.70)	3.21*	2.53 (.95)	1.03	2.91 (.91)	.97
		High school grad.	1.32 (.53)		2.05 (.72)		2.14 (.72)		2.43 (1.14)	
Child related var.	Sex	Boys	1.62 (.68)	.57	2.70 (.79)	1.07	2.48 (.92)	.75	2.73 (.99)	.31
		Girls	1.47 (.61)		2.31 (.98)		2.19 (.87)		2.59 (1.09)	
	Birth order	First	1.65 (.68)	.81	2.50 (.97)	-.22	2.44 (.97)	.44	2.57 (1.09)	-.54
		Below second	1.44 (.60)		2.58 (.79)		2.28 (.82)		2.81 (.93)	

Variables	Parent domain	Restrictions of role		Depression		Social isolation		Parent health		Relationship with spouse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other related var.	Age	30-35	2.88 (.80)	.94a	2.92 (.70)	.79a	2.29 (.60)	-.09	2.69 (1.11)	1.15a	2.27 (.60)	.38a
		36-	2.48 (1.24)		2.60 (1.14)		2.32 (.62)		2.24 (.80)		2.14 (1.01)	
	Ed. level	College grad.	2.72 (.99)	.13	3.25 (.77)	1.96†	2.43 (.75)	.66	2.63 (.99)	.41	2.19 (.68)	.09
		High school grad.	2.66 (1.10)		2.44 (.96)		2.24 (.50)		2.45 (.91)		2.16 (1.00)	
Child related var.	Sex	Boys	2.80 (.93)	.59	2.88 (.82)	.61a	2.36 (.56)	.49	2.57 (1.06)	.49	2.07 (.66)	-.99
		Girls	2.55 (1.17)		2.63 (1.07)		2.23 (.67)		2.37 (.92)		2.40 (.97)	
	Birth order	First	2.60 (.92)	-.52	2.66 (.80)	-.73	2.23 (.62)	-.66	2.41 (1.06)	-.40	2.21 (.70)	.02
		Below second	2.82 (1.17)		2.94 (1.06)		2.39 (.58)		2.58 (.94)		2.20 (.94)	

a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 p<.07, *p<.05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공감적 행동의 하위 변인들과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변인들 간에 어떠한 의미있

는 상관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동이 산만하여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와 놀이상황에서 아동에게 자기 안내를 허용하는 정도가 -.31의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other's Empathy and Parenting Stress

	Communication of acceptance (high level)	Communication of acceptance (low level)	Allowing child's self-direction	Parental involvement
Reinforces parent	.16	-.03	-.21	-.26
Acceptability	.19	-.06	-.11	-.10
Distractability	-.07	-.29	-.31	-.22
Demandingness	.01	-.08	-.14	-.02
Depression	.07	.07	-.14	-.15
Social isolation	-.00	.14	.14	.23
Restrictions of role	-.10	-.15	-.16	.04
Relationship with spouse	.22	.06	.10	.13
Parent health	.21	.07	.18	.32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는 사례수가 적어 그 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지는 못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과 아동에게 몰입하는 정도가 높은 것도 0.32의 상관이 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못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관찰 방법으로 조사하고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상관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애정적 양육행동을 놀이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공감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이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누적되어 왔으나 양육행동은 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기-보고식의 응답과 실제 행동을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어머니의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관련 변인, 그리고 아동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기도 H시에 소재한 모든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어 연구대상자를 지원받아 24명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때 아동들의 연령은 만 5세로 한정하였다. 놀이상황에서 20분 동안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에서 높은 수준의 수용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에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이하인 자녀의 어머니는 첫째 자녀의 어머니보다 놀이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수용적 의사소통을 표현하였으며, 아동의 놀이를 어머니가 주도하거나 아동에게 지시하는 행동을 덜하였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차이를 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출생순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강윤숙(1987)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나 첫째 아동에게 보다 통제적이었다는 이형덕(2000)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첫째 자녀에게 수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보다 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가 딸이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요구 수준이 높아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공감적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에도 차이가 없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차이를 조사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은데, 임희수(1994)는 성별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여아에게 보다 애정적으로 대한다거나(Endsley et al. 1979) 여아를 보다 통제적으로 키운다는 연구(지진미 2003)들과는 다른 결과였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의 자기-안내를 허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36세 이상의 어머니들이 35세 이하의 어머니들보다 자녀의 주도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애정적인 행동을 보이고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존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원영(1983)의 연구결과와는 상치되는 결과였다. 이처럼 상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질문지에 응답하는 경우에 높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것으로 반응하나 실제 행동에서는 아동에게 지시하고 아동의 주도적 행동을 수용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진미(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관련 변인과 아동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수용성과 우울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은(대졸) 어머니들이 교육수준이 낮은(고졸) 어머니들보다 자녀를 돌보는 것을 어렵게 느껴 수용성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는 우울증 요인에서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김혜진(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는 이와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높고 자녀가 그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것과 가정의 환경

적 변인의 수준이 함께 작용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은희와 이영(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교육수준과는 상관이 있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체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 변인에 따른 분석을 하지 않아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연령은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한 고성혜(1994)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으나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주은희와 이영(2001)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아동의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아보다 남아에게 스트레스를 높게 느낀다고 한 신숙재(1997)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으나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김혜성(2001)과 주은희와 이영(2001), 박해미(1994)의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신숙재(1997)는 어머니가 남아에게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남아가 여아보다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며 어머니가 여아에게보다 남아에게 높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논의하였고, Belsky (1984)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성별의 자녀일 경우에 자녀의 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음을 볼 때 아동의 성별 자체가 어머니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떠한 의미있는 상관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동의 산만함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동의 자기안내를 허용하는 정도가 낮은 것,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건강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과 아동의 놀이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 각각 .31과 .32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사례수가 적었으므로 이것이 통계적 유의성은 지니고 있지 못하

였다. 박성연(199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높은 정도로 설명하였으나 온정적 양육행동은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공감적 행동은 애정적 행동 측면이므로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박성연(1996)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안지영과 박성연(200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아동의 자울을 격려하는 행동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육행동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양육 효능감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자울적 양육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숙재(1997)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강압적 행동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을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행동과 상관이 있으며 애정적 행동과는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인 높은 수준의 수용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수용성과 우울증 요인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방법으로 측정하여 질문지 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주관적인 반응을 배제하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구 대상자가 관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에 변이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사례수가 적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아동의 자

울성을 격려하고 아동의 행동을 수용하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실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윤숙(198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두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감,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성(200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적 투자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1990)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지 23(2), 71-88.
- 박영애·최영희·박인전·김향은(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43-60.
- 박주희(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민(1997)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7.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염현경·신윤오(2000) 한국형 불양육스트레스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70-78.

- 이숙·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31-41.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덕(2000) 유아의 성, 출생순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희·이영(2001) 유아 자녀를 둔 일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연구. *생활과학논집* 5(2), 89-106.
- 지진미(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아동교육*, 10(1), 133-146.
-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 Professional manual*(3rd ed.).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Adler A(1921) *A study of organ inferiority and psychical compensation*. New York: Nervous and Mental Disease Publishing.
- Armentrout JA, Burger GK(1972)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tween at five grade level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627-634.
- Bates TE, Maslin CA, Frankel KA(1985) Attachment security,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ratings age three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o.209, 50, 167-186.
- Baumrind D(1966) Childcare practice,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345-348.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onfenbrenner U(1961) Some familial antecedents of responsibility and leadership in adolescents. In L Perullo & BM Ass(eds.) *Leadership and interpersonal behavior*, 239-271. New York: Holt, Rinehar & Winston.
- Chen X, Rubin KH, Li B(1997) Maternal acceptance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 663-681.
- Cmic KA, Greenberg M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Endsley RC, Hutcherson MA, Garner AP, Martin MJ(1979) Interrelationships among selected maternal behaviors, authoritarianism and preschool children's verbal and nonverbal curiosity. *Child Development* 50, 331-339.
- Krech KH, Johnston C(1992) The relationship of depressed mood and life stress to matern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115-122.
- Maccoby E, Martin J(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M Hetherington(ed.), P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101. New York: Wiley.
- Schaefer E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later MA, Power TG(198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in single-parent families. In J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4, 197-228. Greenwich, CT: JAI.
- Stover L, Guernsey B Jr, O'Connell M(1971) Measurement of acceptance, allowing self-direction, involvement, and empathy in adul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sychology* 77, 261-269.